

MMPI-A 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임상특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MPI-A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조 경 덕, 계 선 호
배재대학교 심리철학과

Cho kyoung-duk, Kye sun-ho
Paichai Univ.

요약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계된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학교문제, 성적,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과 외부적인 요인(가족관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 MMPI(다면적인성검사)의 개정판인 MMPI-A검사를 중학교 2, 3학년 489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소외, 품행문제, 낮은 포부 등 4가지 척도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외요인(A-alm)은 높아졌고 낮은 포부요인(A-las)의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기한 4가지 척도와 기존의 10가지 임상척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I. 중학생의 임상특징 조사(MMPI-A)

1. 조사의 의의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A)는 1992년 미국에서 개발된 것을 번역한 것으로 2000년 대한민국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검사이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 등의 문항을 삭제하고 적절한 내용 및 표현으로 수정하여 총 4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검사와 달리 새로운 4개의 척도가 개발되어 청소년 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임상적 성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MPI에서 추가된 4가지 척도 A-alm, A-con, A-las, A-sch를 이용하여 중학생들의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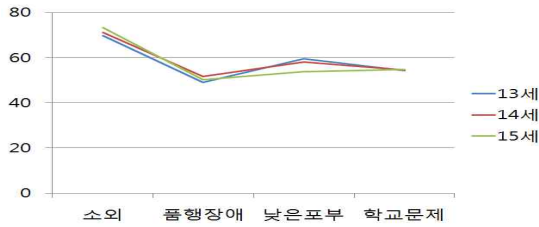
2. 조사의 방법

P시의 D중에 재학중인 중학교 2,3학년 489명에 대하여 MMPI-A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척도의 특징조사와 아울러 중학생들의 자료에서 4가지의 척도 중 T 점수가 65이상인 126명의 학생 중 최종적으로 44명을 제외하고 82명에 대하여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 44명의 제외 대상은 T_F척도가 70 이상인 자료 이수치

는 MMPI매뉴얼에서 거짓반응으로 보는 기준치에 해당한다(19명). 또한 VRIN(무선반응 비일관성 척도) 75 이상은 무작위 반응의 가능성이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73점~82점까지 3명), MMPI-A 척도의 임상척도 점수는 K 교정을 거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K 척도를 청소년들의 방어성을 알아보는 측정치로 사용 할 수 있고 T점수가 65점 이상인 청소년은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1명). TRIN(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은 75점 이상의 T점수가 전방응 편향 또는 오반응 편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3명) 마지막으로 487문항에 대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응답 문항이 1개 이상인 학생을 제외 하였다(8명)

3. 조사결과

주요 조사 대상은 2,3학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나이의 분포는 13세-36명, 14세-38명, 15 세-8명이고 성별분포는 남자-47명, 여자 35명이다. 주요 조사 항목 이었던 A-alm 소외, A-con 품행문제, A-las 낮은포부, A-sch 학교문제의 4종류 요인의 평균 점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나이에 따른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

소외(a-)에서의 점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고(69.78→71.29→73.38) 낮은 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59.53→58.16→53.88). 그러나 종속변수 소외에 대하여 나이에 성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 성별에 대하여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나이 $F=1.866$ $P > 0.05$), (성별 $F=1.056$, $P > 0.05$). 또한 나이와 성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1.272$, $P > 0.05$).

조사의 주요 대상이었던 4가지의 새로운 척도와 기존의 10가지의 임상척도에 대하여 전체적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표1 과 같다.

표 1. 상관관계분석표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aln Pearson 상관계수	.287**	.082	.179	-.196	.064	-.170	.067	.229*	.081	.045
유의확률(양측)	.009	.464	.107	.077	.570	.127	.437	.038	.472	.690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con Pearson 상관계수	.128	-.153	-.217	.214	.105	.053	.437**	.485**	.647**	.083
유의확률(양측)	.253	.169	.051	.054	.350	.633	.000	.000	.000	.458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las Pearson 상관계수	.310**	.480**	.128	.270*	-.019	.138	.529**	.314**	.027	.618**
유의확률(양측)	.005	.000	.247	.014	.867	.214	.000	.004	.808	.000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sch Pearson 상관계수	.380**	.245*	.164	.430**	-.011	.331**	.423**	.367**	.276*	.230*
유의확률(양측)	.000	.027	.140	.000	.922	.002	.000	.001	.011	.038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p<0.01 *p<0.05

소외 (A-aln)에 관해서는 건강염려증(Hs)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r=0.287$, $P < 0.01$), 정신분열증(Sc)과의 상관도 있었다.($r=0.229$, $P < 0.05$). 품행문제(A-con)는 경조증과의(Ma)($r=0.647$, $P < 0.01$) 상관이 가장 높았고, 정신분열증(Sc)($r=0.485$, $P < 0.01$), 강박증(Pt)($r=0.437$, $P < 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포부(A-las)는 내향성(Si)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r=0.618$, $P < 0.01$), 강박증(Pt)($r=0.529$, $P < 0.01$), 우울증(D)($r=0.480$, $P < 0.01$), 정신분열증(Sc)($r=0.314$, $P < 0.01$), 건강염려증(Hs)($r=0.310$, $P < 0.01$), 반사회성(Pd)($r=0.270$, $P < 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문제(A-sch)는 반사회성(Pd)($r=0.430$, $P < 0.01$)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강박증(Pt)($r=0.423$, $P < 0.01$), 건강염려증(Hs)($r=0.380$, $P < 0.01$), 정신분열증(Sc)($r=0.367$, $P < 0.01$), 편집증(Pa)

($r=0.331$, $P < 0.01$), 경조증(Ma)($r=0.278$, $P < 0.05$), 우울증(D)($r=0.245$, $P < 0.05$), 내향성(Si)($r=0.230$, $P < 0.05$)의 순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4. 결론

경기도의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관하여 4개의 요인(A-aln소외, A-con 품행문제, A-las 낮은포부, A-sch 학교문제)에 대한 점수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품행문제와 학교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나이별 비교에서는 나이가 높을수록 소외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낮은 포부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업의 양이 늘어나거나 고학년이 될수록 소외받는다 고 느끼는 학생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사회성의 발달로 포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척도는 기존의 임상척도와 상당히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외는 건강염려증과 상관이 가장 높았고 품행문제는 경조증, 낮은 포부는 내향성, 학교문제는 반사회성이라는 임상척도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4개의 요인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학습 지도의 취지가 충분히 활용되어 학생의 실태에 맞는 적절한 학습 계획이 필요하며 학업 부진 학생의 교육에 대한 별도조사를 실시하여 인성 교육과 아울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상담 실시 결과,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품행지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 학생 지도 시의 교사의 태도, 비행 방지, 교외 생활 지도, 학생 상호간의 인간관계의 육성, 가정과의 연락 강화 등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하고 요소로 나타났다.

■ 참고 문헌 ■

- [1] MMPI-2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 제 4판 pp. 79-116.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7.
- [2] MMPI-2와 MMPI-A의 이해와 활용. 심리상담교육연구회.
- [3] 生徒の校内暴力等の非行の防止について. 日本文部科学省. 2008.
- [4] James N. Butcher, CarolynL. Williams(2000). Essentials of MMPI-2 and MMPI-A Interpretation,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5] ToddL.Morton,KellyL.Farris,and Lisa H.Brenowitz (2002). MMPI-A Scores and High Points of Male Juvenile Delinquents: Scales4, 5, and 6 as Markers of Juvenile Delinqu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14, No.3, p311-319.